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1.06

019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 앞으로 1년,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지금!

성공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가는 길

골목길의 매력찾기...

### 시론

성공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가는 길 최규철

### 건축과 도시환경

골목길의 매력찾기와 복원 · 재생 남승진

### 특별기획

2012여수세계박람회-바다 위의 전시장은 언제 떠오르나?

### 사람 & issue

대다수의 건축사를 대변하는 전전후 건축사 \_ 최진호

### 건축과 도시계획

전주의 도시계획과 공간구조의 변화-제3화 \_ 김현숙

### 건축문화포럼-탐방

늦은 봄날의 근대 · 전통 건축을 향한  
 탐방후기

### 실계경기

무주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축실계경기





# 골목길의 매력찾기와 복원 · 재생

골목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사회적 의미에 대하여...



급격한 경제성장과 자동차의 양산화가 시작되면서 오래동안 간직해 온 도시의 커뮤니티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그것이 향수의 일부분이 되어 버렸다. 생활 속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삶의 문화가 담겨진 골목길이 직선화 된 도로의 정비나 전면철거형의 도시 재개발로 인해 도심의 많은 골목길이 사라져 가고 있다. 편리성과 경제성을 우선한 개발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의 전통적인 소중한 문화는 어디로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되어진다.

### 골목길의 커뮤니티

골목길은 토지를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없거나, 화재나 지진, 교통장애 등 재해 시의 대응에 지장이 있는 등 문제는 많이 있지만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휴식의 공간이 되기도 하며 주민들의 커뮤니티 장소인 골목길에는 따뜻한 인간미가 있는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골목길이 가지는 요소들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골목길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면서도, 그 매력을 유지하고 발견하는 마을만들기 재생수법이나 새로운 마을만들기의 컨셉으로 도입 적용해 갈 수 있다. 골목길에 무엇을 남겨야 하고 무엇을 정비하고, 재생해 나갈 것인가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골목길의 사회적 가치

최근 몇 년간에 걸쳐 도시의 변화는 전면철거형에 의한 도시 개발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이로 인한 원주민의 퇴거, 전통적인 주거문화의 상실, 사람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보다는 자동차 중심의 도로체계, 고층건물로 인한 경관의 훼손 등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 온 커뮤니티가 붕괴되어 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남승진 교수  
동아인재대학 건축과  
yuri4782@hanmail.net

### 골목길의 재창조

우리의 전통적인 커뮤니티 공간의 기능은 길이 그 역할을 해 왔다. 서양에서의 광장의 역할이기도 하다. 골목길은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문화가 만들어 지는 장소이기도 했다. 그만큼 골목길은 우리생활 속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로 연결되는 통로이기도 하다.

골목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사회적 의미를 재발견하고 해석함으로써 앞으로의 건축 디자인과 도시 계획의 소중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 LW패널



무안 남약 도립도서관(LW 편성)



강진 시문학마 기념관(LW 지붕, 벽)



LW 패널 Wood Pattern 색상



FBD 패널 색상표

### FBD패널



상무지구 국민건강보험(FBD PANEL)



2012 여수세계박람회  
**EXPO 2012**  
YEOSU KOREA

# 앞으로 1년, 2012여수세계박람회! 바다 위의 전시장은 언제 떠오르나?



▲ 건설공사가 한창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장(조직위원회 제공)

## 여수 EXPO 개요

공식명칭	2012여수세계박람회 (International Exposition Yeosu Korea 2012)
개최기간	2012. 5. 12 ~ 8. 12 (3개월)
개최지	전라남도 여수시 신항지구 일원 (약 174만㎡)
주제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The Living Ocean and Coast)
부제	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기후환경, 해양생물) ② 현명한 해양의 이용 (해양산업기술, 도시) ③ 바다와 인간의 창조적인 만남 (예술, 문명)
참가규모	100여 개 국가 및 7개 국제기구(해외) 7개 대기업 및 16개 지방자치단체(국내)
관람객	800만 명 예상(외국인 55만명 포함)
총사업비	2조 1,000억원 (시설비 1조 7,921억원, 운영비 3,079억원)

## 세계박람회와 여수Expo

흔히 엑스포라고 불리는 세계박람회(International Exposition, Expo)는 세계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전시 관람 행사로서, 인류문명의 성과와 다양한 미래상을 모색하는 전시·토론의 장으로 월드컵·올림픽과 더불어 3대 세계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인류가 축적한 인류사회의 지식과 기술을 함께 나누고 미래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가는 경제·문화분야의 종합 올림픽인 셈이다.

181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시작된 세계박람회는 등락박람회와 인정박람회로 나뉜다. 등락박람회는 5년을 주기로 주제와 면적에 제한 없이 6주에서 6개월까지 열린다. 2010년 중국 상하이 박람회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인정박람회는 등락박람회 사이에 한 번, 명확한 주제를 갖고 23ha 미만의 면적에서 3주에서 3개월까지 열린다. 1993년 대전박람회와 2012년 여수박람회는 여기에 해당된다.

초창기 박람회는 개최국의 국력과 산업 기술을 과시하는 행사였지만, 점차 그 성격이 자리잡아감에 따라 여러 나라가 모여 각기 특정한 주제를 놓고 인류의 현안과 미래의 지구를 고민하는 자리로 탈바꿈해갔다. 그리고 당대의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과 기술이 공개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또한 스페인 세비야박람회(1992)와 포르투갈 리스본(1998)처럼 세계박람회를 개최한 도시들이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도약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세계박람회는 건축문화의 발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영국의 수정궁(Crystal Palace, 1851)은 그 자체가 박람회의 업적이 되었고, 에펠탑(1889)은 파리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남아있다. 그리고 수많은 건축가들이 박람회를 통해 건축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였고, 명성을 얻기도 했다. 미스 반데어 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의 바르셀로나 독일관(Pavilion, 1929), 풀러(Buckminster Fuller)의 몬트리올 미국관(1967), 오토(Frei Otto)의 몬트리올 독일관 HABITAT 67(1967) 등이 그 대표작인 예이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지리적 위치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생명의 근원이자 자원의 보고인 바다, 그 바다와 육지의 교차점인 연안에 초점을 맞췄다. 해양과 연안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아 현명한 이용을 추구함으로써 인류의 현안과제인 기후변화, 자원고갈,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슬기로운 해법을 찾고자 한다.

## 남은 준비기간은 단지 1년.

세계박람회는 개최 준비기간이 짧은 편이다. 올림픽과 월드컵은 준비기간이 약 7~10년인데 비해 통상적으로 세계박람회는 개최 4년 전쯤에 유치가 결정된다. 세계박람회는 그 기간 동안 박람회장 건설, SOC 확충, 참가국 및 관람객 유치, 전시콘텐츠 개발, 문화행사 기획 등을 동시에 구현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업이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가 확정(2007년 11월 27일)된지도 3년 반이 지났다. 이제 남은 준비기간은 단지 1년이다. 지난 5월 12일,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동석)는 개막 1년을 앞둔 시점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여수세계박람회의 위용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주요 전시관은 크게 주최국인 우리나라가 만드는 주제관·부채관·한국관과 참가자들이 만드는 국제관(참가국관), 지자체관, 국제기구관, 기업관, 그리고 특화 시설로 이뤄진다. 특화 시설에는 지상 최대의 옥외 파이프오르간인 스카이다워, IT와 예술이 결합된 전자미술관인 엑스포디지털갤러리(EDG), 각종 쇼와 공연의 중심이 될 해상 복합공간 빅오(Big-O), 오대양 회귀생물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이 있다.

주제관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며 듀공과 인간 소년의 감동적인 만남을 애니메이션과 퍼포먼스로 보여줄 예정이다. 부채관은 해양생물관, 기후환경관, 해양산업기술관, 해양문명도서관으로 구분되며, 이 전시관들은 각각 '연안의 개발과 보전', '새로운 자원기술', '창의적 해양활동'이라는 여수세계박람회의 3가지 하위 주제를 보여준다.

한국관은 국내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시관이다. 태양광을 이용해 동력을 생산해 전시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탄소배출 제로를 지향한다. 한국관은 해양 국가로서 한국의 비전과 역할을 표현하는 전시 시설로, 박람회 이후에도 존치돼 여수세계박람회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국제관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안개가 낀 잔잔한 파도 속에 흩어진 다도해의 작은 섬들을 형상화하고 있다. 100여개 참가국이 전시물을 직접 기획, 설치하며 큰 규모의 개별국가관과 몇 개 국가가 모여서 함께 연출하는 공동국가관으로 운영된다.

한편 부채관 중 하나인 해양생물관은 국내 최대 아쿠아리움이 될 전망이다. 연면적만 1만 6,400㎡, 수조 용량 6,030톤에 달하는 규모로 건설된다.



이 같은 주요 전시 시설 이외에도 국제기구관, 지자체관, 기업관 등의 전시 시설을 조성, 다양한 단체, 민간과 공공이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참여와 네트워크'의 박람회라는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

## 3가지 신기루, 빅오·EDG·스카이다워

경제와 문화의 종합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설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다. 교통 인프라 등 제반 SOC 구축사업과 행사장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다. 그중에서도 건축물은 그 박람회의 상징물이 되거나, 그 자체가 전시물 중 하나로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결국 박람회 건축물은 개최국가 또는 개최도시의 문화수준과 기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뽑은 세 가지 파격 아이콘은 빅오(Big-O), 엑스포디지털갤러리(EDG), 스카이다워다. 이 시설들은 각각 여수엑스포의 주요 콘셉트인 '문화체험', '유비쿼터스', '친환경'을 가장 잘 보여준다.

## 박람회장, 2012년 3월부터 시범 운영

여수세계박람회장 건설공사는 올해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54%(5월 27일 기준). 그리고 전시 콘텐트들도 실시설계를 마치고 제작 및 설치에 들어갔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강동석 조직위원장은 "애초 건설 완공 일정은 2012년 2월까지였는데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을 갖기 위해 앞당겼다."고 했다. 그리고 "전시관 내의 콘텐트, 문화예술 행사 등 '소프트웨어적인 준비도 내년 2월까지지는 모두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는 이후 3월부터 두 달간 박람회장을 시범 운영해 개장에 완벽을 기할 예정이다.

## 건설과정 활용미흡은 아쉽다.

세계적인 행사인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국내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다. 국내 해양산업의 발전, 해양과학기술 수준의 도약,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우리나라와 여수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건축문화와 건설기술 수준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박람회장 건설과정에 대한 활용은 미흡한 것 같다. 설계자 또는 설계의도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고, 공사과정도 폐쇄적인 편이다. 바다 위의 전시장! 목표가 거대한 만큼 새로운 개념이나 공법 등이 많이 도입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들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때로는 교육의 장으로, 때로는 신기술 상품으로, 때로는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터인데도 말이다.

최종적인 결과물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떠한 생각과 과정을 통해 그 결과물이 도출되었는지도 중요하다. 결과만큼이나 과정을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될 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



- |                  |                 |
|------------------|-----------------|
| 1 빅-O (빅오)       | 9 기후환경관         |
| 2 주제관            | 10 해양생물관(아쿠아리움) |
| 3 국제관            | 11 해양문화도시관      |
| 4 엑스포디지털갤러리(EDG) | 12 해양산업기술관      |
| 5 한국관            | 13 국제기구/NGO관    |
| 6 다목적공연장         | 14 기업관          |
| 7 스카이라워          | 15 지자체관         |
| 8 크루즈터미널         | 16 에너지파크        |

▲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조감도(여수-마스터플랜 회림 건축)

■ 박람회장 공간구성



- Zone 1. 국제관 / 다목적공연장 / EDG / 이코브릿지 / 수변광장**
  - 국제관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문화가 융합되어 다양함이 공존하는 공간
  - 다목적공연장, 수변광장 등 관람의 피로를 줄이고, 공연과 이벤트를 관람
- Zone 2. 한국관 / 지자체관 / 해양생물관(아쿠아리움) / 해양산업기술관**
  - 지자체관은 한국관과 더불어 한국의 해양적 요소를 전달하는 공간
  -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미지 창출을 통해 해양산업기술의 위상을 드높이는 공간
- Zone 3. 주제관 / 빅-O / 해양체험관 / 크루즈터미널 / 수변데크**
  - 해양과 접해있는 바다조망이 가능한 다채롭고 개방적인 공간
  - 복잡하고 불비는 전시장에서 벗어나 수변산책,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 Zone 4. 국제기구·NGO관 / 해양문화 도시관 / 스카이라워 (사일로) / 기업관 / 해양광장**
  - 사일로, 기업관 등 대한민국 IT와 산업의 위상을 전시
  - 다양한 국제사회 이슈를 체험
  - 해양광장 및 스카이라워를 중심으로 이벤트 및 행사 등이 열리는 공간
- Zone 5. 지자체홍보마당 / 근린공원 / 소공원 / 수변공원**
  - 박람회장에서 오토도로 이어지는 곳으로 주민들과의 교류를 위한 공간
  - 여수를 홍보할 수 있는 지역행사 및 숙박시설이 계획된 공간
- Zone 6. 에너지 파크**
  - 신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박람회 시현을 도모
  -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기술 등 해양관련 체험 공간

■ 박람회장 조성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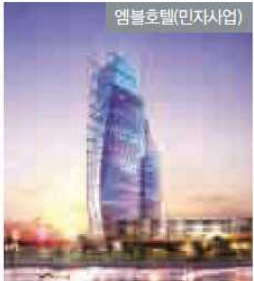
박람회장은 미래를 상징하는 Ocean Belt(종축), 문명과 문화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Fusion Belt(횡축), 소통을 상징하는 Port Belt(연안축), 그리고 여수 세계박람회의 가치가 구현되는 Theme Belt(주제축)로 구성했다.

■ 박람회장 주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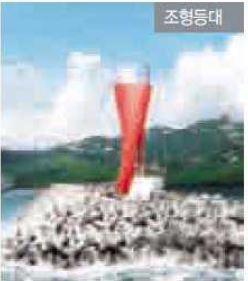


빅오(big-O) (턴키발주 / 설계 \_ 이가 건축)

바다위의 판다지아 '빅오(big-O)'는 박람회장 앞바다의 방파제를 육지와 연결해 만든 해상공간이다. 대규모 공연과 이벤트가 집중되는 문화의 메카.



엠블호텔(인자사업)



조형등대



주제관 (현상설계 당선작 권태를 베베르, 오스트리아)

수직 수평적 광활한 부피감을 갖는 해양과 다소 불규칙하지만 늘 새롭게 변주되는 해안선을 형상화 한 주제관 조감도.



EDG (엑스포디지털 갤러리)

관람객이 만드는 미술관 'EDG (엑스포디지털 갤러리)'는 KTX여수역에서 내려 박람회장으로 들어오면 거치게 되는 길이 415m, 너비 30m의 거리다. 양쪽 벽면과 천정을 LED 스크린으로 가득 메워져 있다.



한국관 (턴키발주 / 설계 \_ 삼우건축)

해구시대를 선도하는 해양 한국의 꿈, 첨단 IT기술력을 적용한 디지털 환경, 램프를 이용한 합리적인 동선계획 등이 결합된 한국관.



스카이라워

버려진 폐사일로로 개조한 '스카이라워'는 여수 엑스포의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외관은 파이프 오르간 모양으로 꾸며지고, 꼭대기에는 전망대를 설치해 여수와 오동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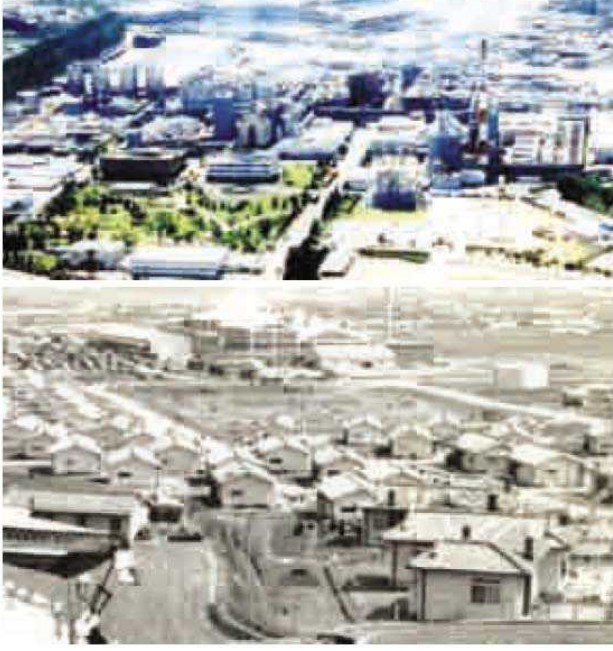


국제관 (현상설계 당선작 해안 건축 + 단우 건축)

안개 긴 다도해의 파도와 작은 섬을 구현한 국가관을 태양 광과 베르누이 자연환기 시스템이 도입, 사후 활용을 고려한 공간계획과 해체, 조립이 가능한 건축기술이 도입되었다.



# 전주의 도시계획과 공간구조의 변화



## 제3화 : 60년대 공업화와 70년대 철도이전에 의한 도시개발과 공간구조 변화

- 제 1화 : 일제강점기 가로정비에 의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2011년 4월호)
- 제 2화 : 일제강점기말 전주 시가지계획과 도시정비 (2011년 5월호)

본고는 일본도시계획학회 논문집에 발표된 1993년 성곽도시 전주에 있어 성곽과 상업공간의 구조적 변천에 관한 연구 및 1994년 성곽도시 전주에 있어 시가지계획에 의한 공간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저서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전주의 도시형성과 공간구조의 변화-에서 본인연구로 기 발표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5회 연재 기획)

**김현숙** 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khs4053@bnu.ac.kr



### 가. 제1차 도시계획재정비(1966년)

제1차 도시계획재정비는 1964년에 수립되어 1966년에 고시되었다. 시가지계획이 수립된지 26년이 경과되었지만 계획의 대부분이 실행되지 못한 채 인구는 20만명을 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공업화와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계획의 목표년도는 1993년, 목표년도 계획인구는 55만이다. 계획구역은 목표년도 인구의 2/3는 시가지에, 1/3은 교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시가지 인구밀도 100m<sup>2</sup>/인, 교외 인구밀도 200m<sup>2</sup>/인을 적용하여 73.3km<sup>2</sup>가 필요하였으므로 당시의 행정구역 105.91km<sup>2</sup>를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하였다.

용도지역 지정 중 상업지역은 시가화면적의 약 10%인 6km<sup>2</sup>로, 공업지역은 용도지역별 면적비 및 일본 6대 도시 사례를 참고하여 10.1km<sup>2</sup>로 추정하였으며 교통·공업용수·풍향 등을 고려하여 팔복동, 송천동, 전미동, 삼천동, 평화동 일대에 배치하였다. 녹지지역은 표고 80m이상의 이용불가능한 토지, 생산녹지, 보존의 필요성이 높은 곳 52.0km<sup>2</sup>를, 주거지역은 상업·공업·녹지지역을 제외한 30.3km<sup>2</sup>를 지정하였다.

가로망은 계획구역의 확대와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확장구역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격자형으로 계획하였다. 확정된 가로는 대로2류(30-35m) 1개 노선, 대로3류(25m) 17개 노선, 중로1류(20m) 12개 노선, 중로2류(15m) 23개 노선, 중로3류(12m) 20개 노선이다.

계획의 특징으로는 공업화의 흐름에 맞춰 공업지역의 면적상정과 위치선정에 고심한 반면,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거주에 적합한 조건을 대성지를 선정하기 보다는 상업·공업·녹지지역의 조건을 설정·지정한 후, 나머지가 주거지역이 됨으로서 인구규모에 비해 면적이 매우 넓고 밀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다. 가로계획은 계획구역 및 주거지역의 확대에 따라 방대한 노선계획이 필요했다.

이 시기에 도시구조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공업지역의 지정과 공업단지의 개발이다. 전주 공업단지는 60년대 중반부터의 공업지방분산정책과 도 차원에서의 6대 기업 및 51개 중소기업 유치운동에 의해 65년 세한제지의 유치를 계기로 66년 8월 건설부고시 제204호로 팔복동에 조성계획이 인가되었다. 팔복동 전주공단은 교통여건, 위치적 특성, 기반시설정비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다. 호남고속도로 I.C와 인접해 있으며 전군도로가 단지내를 통과하고 있고, 북전주역으로부터 철도인입선 설치가 용이했다. 뿐만 아니라 고산천 및 소양천 합류점으로부터 저렴한 양질의 공업용수 확보도 매우 용이했으므로 이를 배경으로 경쟁력을 확보했다. 공업단지 및 관련 지원시설의 입지와 익산·군산과의 위치적 관계에 의해 도시발전축은 철도와 전주천을 경계로 북서쪽으로 확대되어 갔다.

### 나. 제2차 도시계획재정비(1970년)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한 1966년의 도시계획재정비는 채 3년도 지나지 않아 재검토가 요구되었으며 1970년 제2차 도시계획재정비가 이루어진다. 계획변경의 주요원인은 60년대 말 상위계획에 의한 전주권이 금강하류를 중심으로 전주·군산·익산의 3개 시와 충남 서천군 및 전북의 7개 군을 포함한 458,192km<sup>2</sup>의 광역권으로 설정되었으며, 그 중심기능을 전주가 담당함으로써 대상 도시들과의 기

능분담 및 공간적 연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소비도시의 생산도시화, 중추관리기능의 확충정비, 시민소득향상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정비를 목표로 이루어진 제2차 도시계획재정비에서의 큰 변화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계획기간은 30년이 예측불가능한 장기간임을 감안하여 목표년도는 20년 후인 1986년으로, 계획인구는 50만명으로 설정하였으며, 충분한 녹지 확보 및 계획우회도로의 구역내 포함 등을 이유로 완주군 초촌면과 상관면 대성리·색장리 49.1km<sup>2</sup>를 포함한 157.8km<sup>2</sup>로 계획구역을 확장하였다.

토지이용계획에서 상업지역은 1.79km<sup>2</sup>에서 3.36km<sup>2</sup>로, 공업지역은 8.53km<sup>2</sup>에서 9.31km<sup>2</sup>로 확장하였다. 특히 공업지역은 익산, 군산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팔복동 일대에 집중시키고 평화동, 삼천동 일대의 공업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전환시켰다. 또한 주거지역의 밀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66년의 41.74km<sup>2</sup>를 28.97km<sup>2</sup>로 축소하였다.

교통계획 측면에서는 기존의 전라선 철도가 도심을 관통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소음문제의 완화 및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역사를 시의 동측 경계부 가까이로 이전하고 이곳에서 팔달로에 연결되는 광로 백제로를 계획하였으며, 역전 광로변에 상업지역을 배분하였다. 또한 상업지와 업무지를 분리시켜 관청, 사무소, 금융가를 집결배치할 목적으로 백제로변 전북대학교와 금암동간을 업무지구로 설정하였다.

### 다. 공간구조의 변화

70년대까지 도시발전축이 북서쪽으로 향할 수 밖에 없었던 주요 원인은 다음의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도시공간의 확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연적 요인은 산, 바다, 하천 등이며, 인위적 요인은 철도, 고속도로 등이다. 전주의 도심은 남측과 서측이 전주천 및 기린공원·산성공원·완산공원·다가공원·화산공원으로 이어지는 이중적 장애요인을 갖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전라선 철도가 도심과의 연계확장을 저해하고 있었으므로 공간의 연속성이 확보된 북서쪽으로 확장이 매우 용이한 조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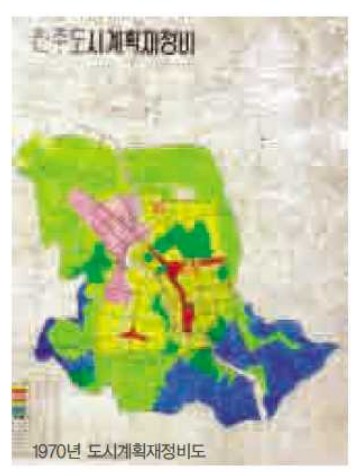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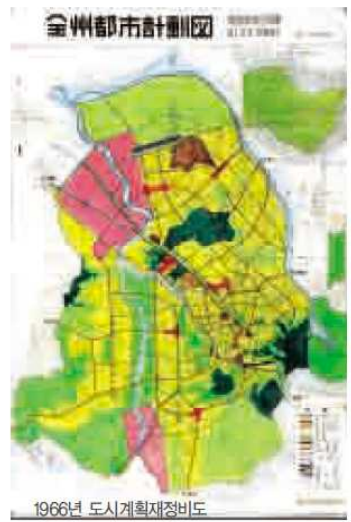
둘째, 도시발전은 도시간 간선도로축을 따라 성장하며 도시간 인적·물적 이동량에 비례하므로 도시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익산·군산을 향하여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들 도시와 연계 개설된 철도 및 전군도로 영향도 매우 컸다.

셋째, 이용인구 및 이용권역의 규모가 큰 영향력 있는 시설의 입지는 주변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야기시키므로 전북대학교의 덕진동 입지 및 성장은 도시발전축의 북향을 큰 영향을 미쳤다.

넷째, 공업화의 추세에 따라 고속도로 및 지역간 도로, 항만과의 연계성, 공업용수 확보의 용이성, 폐수처리를 위한 도시하천의 하류 지역, 풍향 등이 고려되면서 팔복동 일대가 공업지역의 적지로 평가되면서 공장 및 관련 지원시설이 입지하면서 토지이용이 활성화되어 갔으며 도시발전의 북향을 한결 강화·진행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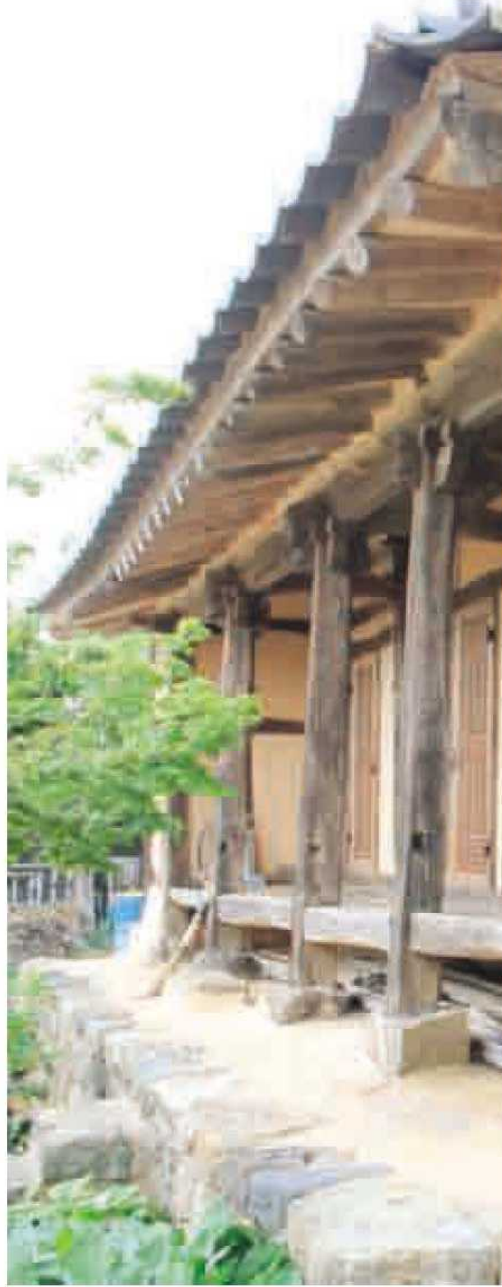
그러나, 1970년 도시계획재정비에 의한 철도이전계획은 도시구조의 획기적 변화를 도모하였다. 철도역을 경계로 북서방향으로만 성장해 가던 도시발전축을 동서방향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백제로변에 업무지구를 지정하여 공공업무기능을 유지하도록 의도함으로써 도시발전축의 개발가능성을 한층 높여 80년대 부터는 동서방향의 도시개발이 본격화된다. ※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 늦은 봄날의 근대 · 전통 건축물 향연

지난 2011년 5월 22일(일) 건축문화사랑 포럼을 통해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일반시민 및 편집위원, 대학생 기자 등 많은 인원이 참석 한 가운데 전남에 위치한 몇몇 근대건축물과 전통건축물을 탐방함으로써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장이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탐방지로는 등록문화재 제44호인 나주 노안 천주교회와 등록문화재 제34호인 (구)나주경찰서, 전남을 대표하는 전통한옥 마을로 영암 구림마을과 조선시대 사대부 가옥이 많이 남아 있는 나주 도래마을을 탐방하였다.

## 나주, 해남지역의 천주교 모태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나주 노안성당

전남 나주시 노안면에 자리한 나주 노안성당은 1927년 일제강점기 건축물로서, 초기에는 강당형 서양식 평면 형태였으며, 1957년 날개부분을 증축하여 현재의 라틴 십자형 평면 형태가 되었다.

1894년 서울출신 정락(요한)이 박해를 피하여 함평군 나산면에 한약방을 운영하였고 산 하나를 사이에 둔 나주시 노안면 주민들이 왕래하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 이후 목포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한 천주교의 세력 확장으로 공소수가 증가함에 따라 내륙지방에 본당 설립이 시급하게 되었으며 유교적 성향이 강하여 나주의 중심지에 건립하지 못하고 외곽에 설립하였다.

나주 노안성당은 전남에서 목포 산정동 성당 다음으로 나주, 해남지역의 천주교의 모태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단층의 적벽돌 건축물로 목조 트러스 구조이며, 지형차를 이용하여 지하층에 창고를 두었다. 매년 성탄절에는 자연 속에 안겨 있는 나주 노안성당 앞 조그만 야외무대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있다고 한다.



## 관리와 보존 및 활용방안 수립이 시급한 (구)나주경찰서



나주시 금성동에 자리한 (구)나주경찰서는 1910년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직접 세운 공공건축물로서 우리국민을 억압하고 고문했던 곳으로 일제의 만행을 증언하고 있으며 지상 2층, 붉은 벽돌조, 목조 트러스에 기와지붕 구조이다. 건물의 외관상 붉은 벽돌에 중요 부분만 흰색페인트를 칠하여 수직성을 강조한 단순한 형태의 건축물이다. 최근에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각종 시민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 소홀 등 내부 공간 활용방안 개선책이 시급해 보였다.

## 주변여건과의 부조화로 많은 아쉬움을 남긴 영암 전통한옥(구림)마을

전남을 대표한 전통한옥마을인 구림(비둘기 숲)마을은 통일신라 말기의 승려인 도선 국사와 조선명필로 유명한 한석봉이 자란 곳으로 일명 서호정 마을로 불리고 있다.

2200년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구림마을은 북쪽을 북송정, 동쪽을 동계, 남쪽 산 밑을 고산, 남송, 서쪽을 서호정이라 부르고 열두 동리에 걸쳐 600여 호의 대촌을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마을 내에는 이순신 장군이 들렀다는 유형문화자원인 회사정, 국사암, 담숙제 등 12개의 누정과 전통가옥, 돌담, 고목나무 등이 옛 그대로 즐비하게 남아있고 매년 올리는 당산제와 구림대등개는 민속 문화자원으로 전승되고 있다. 또한, 시유도기 발생지로 통일신라시대 때부터 도기문화가 꽃 피웠던 곳으로 생활 도자기를 전시하고 있으며 현재도 직접 굽고 있다. 마을 어귀에 썩어진 아인(我忍)은 자기부터 잘 다스리라는 뜻으로 다시 한 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구림 마을 한복판에는 슬라브 주택 위에 기와를 올린 국적 불문의 이중 지붕구조를 한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리고, 2008년 건립한 영암도기문화센터와 현재 시공 중인 미술관의 규모와 구조가 마을의 전통한경과 걸맞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그 지역의 오랜 전통과 특성이 무시 된 무분별한 개발은 오히려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더욱 그림자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 과거 조선시대로 회기한 듯한 나주 도래마을



배산임수형인 나주 도래마을은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에 위치한 풍산 홍씨의 집성촌으로 마을의 맥이 세 갈래로 갈라져 내천(川)자 형국을 이루는 까닭에 도천마을 이라고 불리고 있다. 도래마을은 조선시대의 사대부 가옥이 많이 남아 있는 전형적인 한옥마을로 가구 수가 100여 호 정도이며 마을 전체의 경관이 빼어나다. 마을 입구에 공동 정자와 연못 등이 있고, 2층 효자문 역시 독특한 경관을 자랑하고 한옥 사이의 돌담길에서는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도래마을 옛 집들은 중요민속자료 151호 풍산 홍씨 종택인 흥기음 가옥과 중요민속자료인 흥기현 가옥, 전남민속자료 9호인 흥기창 가옥 등이 있으며 관리가 잘 된 많은 종류의 수목과 각종 화초들이 어우러져 과거 조선시대 그 느낌의 파노라마를 체험하는 듯하였다.

근대건축물과 전통건축물에 대한 복원과 보존사업이 오히려 전통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개발행위로 변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화유산에 대한 건축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근대건축물과 전통건축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복원과 보존에 열을 올리는 지자체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과에만 급급하여 체계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게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전통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개발행위로 변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탐방에서도 그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명목으로 세금이 낭비된다고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웠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우리 건축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



작년에 이어 개최된 건축문화포럼에 참여대상을 일반시민 및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포럼의 목적인 건축문화에 대한 소통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였다.

근대건축과 전통건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탐방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5학년 정주열



근대건축으로 지정된 나주 노안성당과 (구)나주경찰서, 그리고 전통 건축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영암 구림마을, 나주 도래마을을 다녀왔다. 근대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는 노안성당은 겉모습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주변경관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함께 보며 옛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구)나주경찰서는 근대에 있었던 일들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는 듯 했다. 중간에 증축한 모습까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경찰서 건물은 박종호 건축사의 설명을 듣고 난후에는 일제 강점기에 핍박 받던 선조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전통 건축마을로 지정된 도래마을과 구림마을은 나에게도 전통건축의 보전과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

현재까지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물들도 많이 있었으며 또한 문화재로 지정 뒤 사람이 살지 않는 곳도 많이 있다. 하지만 관광지로 지정되고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새롭게 탈바꿈 되어 가는 모습들이 진정한 전통건축물을 지켜나가는 것인지, 더 훼손하고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어 혼란스러웠다.

인위적인 마을 담장과 진입로 잘못된 보수 공사로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주변 모습들이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생활해 가면서 유지되고 있었던 모습들이 더 보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았을까?, 앞으로 전통 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더 좋은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현재도 그 가옥에서 지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최대한 원형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불편함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건축인으로서의 자세인 것 같다.

우리 건축문화의 역사를 좀 더 주의 깊게 찾아보는 계기되어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4학년 강현제



처음 선배에게 답사를 권유 받았을 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같은 마음이 들었지만 긴만에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답사를 하며 기분전환을 한다는 생각으로 순천을 떠났다. 우선 처음 갔던 나주 노안천주교회는 요즘 성당들처럼 거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고, 적벽돌을 사용한 단층 건물로, 강한 임팩트를 주는 요즘 건물들과는 다르게 은은하게 파지는 아카시아 향기처럼 강렬하지는 않지만 존재감을 분명히 나타내 주었던 것 같았다.

예전 건물이다 보니 단층건물에 증축을 해서 라틴심자가 형태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유교사상으로 인해서 남녀가 나누어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흥미 있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나주 도래마을은 사대부의 가옥이 많이 남아있는 한옥마을로 풍산 홍씨 집성촌이라고 한다. 가옥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들었으며, 사대부 가옥답게 조경 또한 잘되어 있었다. 자연을 소유하고 싶은 옛사람들의 마음으로 담장 밖 풍경을 쳐다보며 사색에 잠기기도 하였다.

또한 분기도 아니면서 분기보다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던 한옥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일제의 규제에서 좀 더 자유로워진지 기존 큼직한 한옥보다 아가씨가하면서 색다른 맛이 있었다.

기법 중에 약간 생각해 봤던 것은 이 건물은 절의 배치 기법을 사용한 느낌이 들었다.

첫 대문을 지나서 작은 텃밭은 지나면서 사선이 길의 양 옆에 이어진 식재로 옮겨지고 다음 문을 열면 건물을 가리는 나무들 등 마치 절에서 산문 입주문 등 각 문을 지나 바로 대웅전에 사선에 가지 않게 하기위한 축 꾸밈이라든지 탑의 배치와 무척 닮아 있었던 것 같았다.

여행을 마치고 느낀점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남아있고, 의미 있는 것들이 많으면서도 잘 찾아보지도 않고, 해외의 건축만 보고 싶어 했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역사를 좀 더 주의 깊게 찾아보고, 간간히 이런 건축물들을 보러 여행을 다녀야겠다.

많은 건축적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건축문화포럼!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5학년 이수정



요즘 들어 햇빛도 적당하고 바람도 선선한 것이 참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이다. 심었는데 마침 건축문화사랑에서 답사를 간다가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참가하게 되었다.

처음 목적지는 나주 노안천주교회로 언덕에 위치한 붉은 색의 고즈넉한 건물이었다.

이 건물은 나주 지역 최초의 천주교회이며 십자형의 벽돌조 건물로 종교시설 치고는 작은 규모였다. 원래는 박공지붕을 가진 한일자 형태였으나 증축을 통해 라틴크로스 형태가 되었다고 하며 건물의 곳곳에서 증축의 흔적과 과거의 모습을 짐작케 하는 단서들이 있어 건축물을 찬찬히 뜯어보며 과거의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점심 이후로 찾아가는 곳은 영암의 구림마을과 나주 도래마을이었는데 두 곳 모두 전통한옥의 보존과 활용을 중심으로 마을조성과 관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었다.

마을들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전통한옥의 공간배치와 구조방식 등에 대해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쉽게 되어 좋았다. 이런 마을들을 둘러보면서 아쉬운 것은 재정적, 인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진행이 더딘 점, 전통한옥의 활용방안이 다양하지 못하고 현 거주자들조차 한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훼손되거나 방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더욱 살기 좋고 아름다운 마을이 될 거란 생각과 동시에 단순히 그곳에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답사를 마무리하면서 특히 좋았던 것은 현재 건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대선배들과 함께여서 답사 중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이번 답사에서 보게 된 것들, 그간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많은 건축적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답사 덕분에 나 자신의 건축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넓어진 느낌이 들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아져 건축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설분쟁! 공정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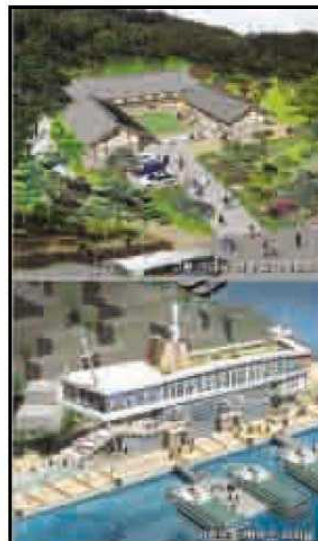


"건설분쟁은 공정한 평가와 대화로 해결된다."

감정인 건축사 정태호

25년 공사원가분석  
15년 법원 공사비 감정 위원

TEL:062)512-8044 HP:010-3602-3378



WE BUILD FOR THE FUTURE.

(주)공간평인건축사사무소  
강필서

Tel 062) 380-7511-3  
Fax 062) 380-7506  
Add 영암광역시 서구 지평동 1276-7  
59697명



## 저층 건축물 구조계산 프로그램 'midas eGen (이젠)' 설명회

- 참석회원, 건축사협회 회원 인증 2시간 수료 인정

대한건축사협회와 (주)마이다스아이티가 국내 건축물의 97.4%를 차지하고 있는 5층 이하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성능 확보를 위하여 추진, 개발한 구조계산 프로그램 'midas eGen (이젠)' 설명회가 6월 8일 대구, 경북권을 시작으로 약 한 달간 진행된다.

호남권 설명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 ■ 호남권 설명회 일정

지역	일시	전시장소
광주	6월 21일 14시 30분	광주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
전남	6월 22일 14시 30분	상동
전북	6월 23일 14시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2011년 1학기 초청강연회

- 호남대 건축학과, 김홍식 교수, '친환경 건축물의 설계기법 및 사례' 강연



광주대학교 건축학과에서는 지난 5월 26일 2011년 1학기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사로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김홍식 교수를 초청하여 '친환경 건축물의 설계기법 및 사례'라는 주제의 강연을 진행하였다.

친환경 건축물이란 "지속가능한 개발의 일환으로 건축의 기본계획, 설계, 생산, 유지관리 그리고 폐기에 이르기까지 건축의 전과정에 걸쳐 총체적으로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인간의 건강과 쾌적성 향상을 가능한 건축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 건축물이 지어지는 과정에는 국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있고 또한 해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좋은 강연회가 되었다.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이훈희 학생기자 hr3759@naver.com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Universal Design 특강

- 순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철호 소장 초청 특강



순천대학교 건축학부에서는 지난 5월 24일, 공대 합동강의실에서 순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철호 소장을 초청하여 Universal Design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날 특강은 김철호 소장이 젊은 나이에 사고로 장애인이 된 이후 자립생활까지의 경험담을 비롯하여 일상 생활속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순천대학교에서도 볼 수 있는 장애물들, 그리고 배려가 되지 않는 곳들을 짚어보며 Universal Design에 대한 강의 내용이 이어졌다.

장애인들에 대한 사람들에 편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착되지 않아서 가까운 일본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의 차이점 등에 대한 강의를 하였고, 또한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어서 장애인 이외에도 어린이, 임산부, 노인, 일시적 장애를 갖는 사람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Universal Design이란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정주영 학생기자 joo-yeol@nate.com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워크샵 및 SCRIPT설계경기, 전문가 초청강연



### ▶ WORKSHOP & SCRIPT설계경기

7월 4일 ~ 7월 15일 (RHINO, GRASSHOPPER, CATIA, REVIT),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5층 설계실, 박기우 건축학과 조교수

### ▶ LECTURE

3차 강연 : 6월 10일 13:30 ~ 15:30,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1층 세미나실, 정림건축 노휘 소장 건축사, '시대정신과 시대감성'

문의사항은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박기우 조교수(062-9452-7811)께 문의하면 된다.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초청강연회

- Mass Studies 조민석 대표 초청, 진행 프로젝트 중점 강연



전남대학교 건축학부에서 지난 5월 26일 Mass Studies, 조민석 대표의 강연이 이루어졌다.

이날 강연에서는 Collective Intimacy, Time Specific, Move-ment, Matrix, Hike-Ability, Formal Structure 등을 언급하며 그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프로젝트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조민석 대표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석사를 마치고 컬럼비아대학교대학원 건축학 석사를 수학했으며, 2003년 Mass Studies 건축사무소를 설립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픽셀하우스, 자이 갤러리, 링동 등이 있으며 뉴욕 건축연맹에서 주관하는 젊은 건축가상, AIA 건축연맹상 등을 수상하였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김여우 학생기자 kimyeru@hanmail.net

## (사)한국농촌건축학회, 호남대서 춘계학술발표대회 가져

- 지난 5월 13일부터, 1박 2일간 학술발표와 농촌마을 답사 진행



2011 한국농촌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양근 창평면 삼지내마을 농촌체험 프로그램

(사)한국농촌건축학회(회장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최영규 교수)는 지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상정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경관은 농어촌의 경관'이라고 강조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되어 조건이 열악한 농어촌건축을 위하여 헌신하는 농촌건축학회 회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호남대학교 복지관에서 열린 첫날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운동진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의 '농어촌 정책방향'에 대한 특별강연이 있었고, 이숙옥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이 전라남도 행복마을을 중심으로 '농어촌 마을가꾸기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이명숙 모평권역 운영위원회 사무장이 '함평 모평권역 사업추진 성과 및 수범사례'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종합토론에서는 조영준 조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농어촌 정책과 행복마을 그리고 농어촌건축의 방향성 등에 대하여 열린 토론이 벌어졌으며, 그 열기는 함평 모평권역 상모마을 한옥까지 이어져 밤늦게까지 식을 줄 몰랐다.

또한 둘째 날에는 속소가 위치한 함평군 해보면 모평권역 한옥마을과 슬로시티를 지향하는 담양군 창평면 삼지내마을을 답사했다.

양일간에 걸쳐 학술발표대회와 답사에 참여한 농촌건축학회 회원들은 '녹색의 땅' 전라남도의 농촌건축과 경관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건축의 산실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재형 건축사 기자 archiseo@lycos.co.kr

### 학생기고

##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죽은 자, 정의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많기에 사회가 이만하게 유지되는 것인가? 아니면 법이 있어서 이만큼 사회가 유지되는 것인가? 도대체 법은 왜 존재하는가?

법은 무엇인가? 이념과 가치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존재하고 그 무엇인가를 찬찬히 살펴보면 반드시 정의의 문제가 제기되기 마련이다.

이런 말이 있다. '법대로 하자' 당연한 말인데, 법대로 하지는 말은 뒤틀려짐이 숨어있다. 정의와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 빼어드는 나쁜 허드슨 인양 느껴진다. 갈등이 법의 문제가 되는 순간, 정의는 뒷전이 되어버리고 누가 더 센지 대보자는 파워게임의 으뜸장이 된다.

이럴 때 내 귀에 속삭임마냥 참담한 소리들이 들린다. "

척하게 살면 손해다. 정직하게 살다가 불명당하기 십상이다. 남들처럼 살짝 때 묻고 사는 게 낫다. 행길 때 잘 헹구는 게 삶의 지혜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정도라면 오히려 불편하다."

이런 주장에는 법을 어기면 이익이 되며, 지키면 손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욕망을 충족시키며 행복을 느낀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각자 욕망을 채우려다 보면 갈등은 일어난다. 서로 먼저, 더 많이 차지하려고 거칠게 다투고 싸울 것이다. 이때 인간은, 흡수가 말한 것처럼 인간에 대해 늑대가 된다.

정의의 이름으로 죽은 자의 추모 2주년에 고개를 숙일 것 인가, 정의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자의 생일에 절을 할 것인가.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들의 모습이 궁금하다.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서민식 학생기자 archily@nate.com

## 제17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 총회 광주 개최

- 신임 대한여성건축사회장에 고은영 건축사(건축사사무소 가진) 선출



지난 5월 27일, 광주 출리데이 인 호텔에서 제13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전국 100여명의 여성건축사들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박주선, 이용선, 박정숙 국회의원,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의 회장 외 각 시도 회장단 등이 대거 참석하였다.

대한여성건축사회 회장 황정은은 개회사를 통해 "전국의 여성건축사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서 뜻 깊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시고 대회 개최에 도움을 주신 모든 인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시대를 앞서가고자 하는 여성건축사들이 많은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강운태 광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현 시대를 이끌어가는 전국 여성건축사들의 총회를 창조도시 광주에서 개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광주시는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분야에 여성들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할당해 우먼파워를 펼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말해 참석한 여성 건축사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 총회에서는 올해로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황정은 건축사에 이어 신임 대한여성건축사회장에 고은영 건축사(건축사사무소 가진)가 선출되었다.

한편, 1박 2일 동안 진행된 제17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는 의재미술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담양 소재원, 창평솔로우 시티 견학 후, 차기 대회에서 만남을 약속하고 해단식을 가졌다.

## 전북건축사회,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협회 공식 방문

- 이성엽 회장, "이번 방문 통해 양국 건축문화 교류와 이해 증진 폭 넓혀"



전라북도건축사회는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협회를 공식 방문하였다.

이성엽 회장을 단장으로 8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지난 2009년도 국제 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 두 번째로 방문하여 양 협회 회원들의 우호 증진은 물론 양국의 건축문화 교류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강소성 감찰설계협회를 방문하여 육근법(陸根法)이사장의 안내로 협회 건물내에 전시되어 있는 친환경 건축 자재와 시스템을 견학하고, 협회 회의실에서 양 협회간의 공식회의를 가졌다.

육근법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 협회간의 교류가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되어 양 협회 발전과 회원들의 우호 증진에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이성엽 회장은 "지난 2010년 협회 창립 45주년을 기념해 도회에서 개최한 국제 건축 작품전에 강소성의 여러 설계원 작품을 출품해주셔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협조해 주신 감찰설계협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하였다.

공식 회의에서는 내년엔 감찰설계협회의 전라북도 방문과 건축 작품전에 감찰설계협회 회원들의 작품 출품에 대해 협의 하였다.

전북건축사회에서는 앞으로 강소성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의 이해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 한국·오스트리아 지속가능한 국제건축전

- 광주 : 6월 20일 - 광주시청 1층, 전남 : 6월 23일 - 여수 환경도서관 전시



세계적 수준의 건축설계기술과 에너지기술을 가진 오스트리아 건축사들의 실제 건축된 건축물들이 6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약 한 달간 광주를 비롯해 서울, 안산, 천안, 여수 등 6개 시도에서 순회 전시된다.

한국 YMCA 전국연맹에서 총괄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 순회 전시를 비롯하여 국제토론회가 진행된다.

호남권 순회 일정 및 광주 지역 국제토론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 ▶ 전시일정

지역	일자	전시장소
광주	6월 20일 ~ 6월 22일	광주시청
전남	6월 23일 ~ 6월 25일	여수시 환경도서관

### ▶ 광주 지역 국제토론회 일정

- 일 시 : 2011년 6월 21일(화) 오후 2시~5시
- 장 소 : 광각INGO 센터 4층 강당
- 발제 1 : EU 저탄소녹색건축 현황과 정책방향(Martin Treberspurg)
- 발제 2 : 오스트리아 친환경건축의 사례(Gerhard Kopeining)
- 발제 3 : 한국의 저탄소 녹색건축의 현황과 과제(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효원 교수)

### ▶ 건축가 Lecture 일정(안)

일시	참여 건축가	전시장소
6월 20일 19시	1) Pr.Martin Treberspurg 2) Stefan Rutzinger	조선대학교 제1공학관 대강당(17층)
6월 21일 18시	1) Herwig Spiegl 2) Gernot Hertl 3) Simon Speigner	전남대학교 공대2호관 412호

## LG하우시스 2011년 신제품 설명회

- 지역 건축사들, 첨단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에 많은 관심 보여



LG하우시스 Z:IN창호는 지난 5월 17일 광주 갤러리(웨딩홀)에서, 5월18일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광주·전남·전북의 건축사사무소와 우수고객을 초청하여 신제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LG하우시스의 친환경에 관한 비전과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창호 제품을 소개하였다.

LG하우시스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창호일체형환기시스템 '자동환기창'을 개발하였고, 고기능성

유리를 광주 평동공단에서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매장형 창호전문점 '지인 윈도우플러스'를 개설하였다.

'Z:IN Window Plus'는 PVC창호,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커튼월, TPS진공유리 등 다양한 제품을 고객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상담, 견적, 시공, A/S등을 한곳에서 처리하고, 창호전문 컨설턴트가 맞춤설계를 지원하면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건축사회  
단신

## 심상봉 회장, 광주지검 법의 날 기념식서 표창받아

- 법질서 확립 유공자로 인정받아 표창 수상



지난 4월 25일 광주지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8회 법의 날 기념식서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이 법질서 확립 유공자로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이날 기념식에는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심상철 광주지법원장, 강행욱 광주변호사회장 등 관계기관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심상봉 회장 외 법질서 확립 유공자 12명이 표창을 받았다.

##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축하 동참

- 광주건축사회 회원 일동, 축하 플래카드 설치



광주건축사회 회원 일동은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광주건축사회관 입구에 설치하여 등재 축하에 동참하였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지난 5월 25일자로 영국 맨체스터에 열린 제10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되었다.

## 광주건축사회, 2011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 임시총회서 건축사회 감사 및 신협감사로 이광천 회원 선출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5월 30일 2011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1개의 부의인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부의인건에 감사 1인 결원으로 상정된 감사 선출(보선의) 건에 이광천 회원(동신 건축사사무소)이 선출되었으며, 내년 3월까지 건축사회 감사 및 신협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 일본 JIA 후쿠오카회 방문



지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광주 건축사회 심상봉 회장과 신정철 전임회장, 안대경 국제위원장, 남승진 교수가 일본 JIA 후쿠오카회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목적은 한·일 교류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2011년도 교류 협력사항으로, 제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관련 교류내용과 2012년에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참가 방안이 논의되었다.

## 2012대한민국건축사대회 준비 박차

지난 6월 2일 광주건축사회관 회장실에서 2012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위한 제자 집행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심상봉 회장을 비롯한 전임 회장과 실무진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이날 대회 일정 및 장소에 관한 협의와 집행 및 분과위원회 구성, 대회구성에 대해 협의하였다.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시민안전 결의대회'

- 회원일동, 결의문 발표 통해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 다짐

광주건축사회는 오는 6월 11일 토요일 서구 국민체육관에서 심상봉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연수를 개최하고 시민안전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결의대회는 위법건축을 근절 및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확인 직 무능력 제고와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주된 내용은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확인 업무의 철저한 이행과 위법건축물 사전예방 강화로 시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결의문 채택'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체육대회'가 진행된다. 이날 심상봉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건전한 건축풍토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광역시청 강백룡 건축주택과장은 시민안전 결의대회 개최 소식에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지역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결의문>

- ◎ 우리 광주건축사회 건축사들은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왔다.
- ◎ 그러나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다가구주택의 위법 시공,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의 확인 등의 문제점들이 보도됨에 따라 국가전문 자격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건축사 역량 강화 및 시민의 권익보호,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 건축사의 권익을 건축사 스스로 지키겠다.
- 우리 건축사는 건축의 본질과 기술에 충실하여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 건축사는 구조 안전 확인 및 내진설계를 강화하여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 우리 건축사는 위법을 근절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 우리 건축사는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시민들에게 봉사한다.

2011. 6. 11.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원 일동

## 대동문화재단, '건축공간과 정치논리'라는 주제로 포럼 개최

- 박용근 건축사 발표, "건축공간, 장소·콘텐츠·보존 등 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지난 5월 31일 광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대동문화재단 주최로 대동문화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발표자인 박용근 건축사는 "건축공간과 정치논리-문화시설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치논리에 의해 지정된 문화시설들을 언급하며 발표를 진행하였다. 광주시립미술관에 대해서는 접근성에 기인한 '정소적' 문제점을, 아시문화전당의 경우 도청 별관철거논란으로 완공 시기 연기와 '콘텐츠'에 따라 달라지는 도심 분수효과를, 광주시민회관은 '보전'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단체장의 시정논리에 따라 철거방향을 개획했던 내용을 지적하며 "건축공간은 장소, 콘텐츠, 보존 등 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 광주경제살리기 운동본부 박용구 기획단장과 대동문화포럼 정인서 사무처장 등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자 모두 "광주가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대동문화재단은 전통 문화를 보존 계승하고 문화예술의 개발과 산업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8년 대동문화포럼을 발족하였으며,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매달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062-226-7400 팩스: 062-225-5310  
홈페이지: nicelawyer.co.kr/윤변호사.com

###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심상봉, 윤문근, 이성엽  
**편집인** 박용근  
**전담기자** 광승국  
**편집위원** 이순미, 서재형, 강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천경호, 이광영, 김기범, 박상윤, 정관영, 박종호, 양우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간월** 2010-01-25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삼화문화사 T.062)222-6660  
**광고신청** T.062)521-0025

### 건축문화 사랑

표/지/설/명

추억의 골목길  
어릴 적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슬래깅기 놀이를 한 추억이 있다.  
현대 들어와 도로정비나 도시 재개발로  
인해 사라져 가고 있는 골목길...  
그때 그 추억을 회상해 본다.

###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문 형 록	1번석기초이앤앰(주)	100만 원
장 병 업	1 초석건설산업(주)	100만 원
정 태 호	1 건축사사무소 영일빌	20만 원
알파시스템창호		50만 원
(주)슈퍼오도리		50만 원

###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직품/독자만평/기타 (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매달 25일  
문 의: 광주건축사회 (Tel: 062-521-0025)  
E-mail: gkira@empal.com

1. 건축직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연락처를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 전북건축사회, 협회발전을 위한 워크숍 및 초청강연회 열어

- 도내 건축행정 공무원 등 100여명의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



전북건축사회에서는 지난 5월 16일(월)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전라북도건축사회 발전을 위한 Workshop 및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급변하고 있는 건축환경에서 슬기롭게 적응하고 부단한 자기개발과 조직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으며, 전라북도 건축사뿐 아니라 전북도내 건축행정 공무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강좌는 원광대 건축학과 박기우 교수의 '비정형 건축설계를 통한 BIM 및 한국건축기술의 현주소'라는 주제와 한국구조기술사회 이강일 호남지회장의 '건축물의 내진설계주제로 진행되었다. 박기우 교수는 BIM 설계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업종 상호간의 협업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강일 지회장은 지진에 따른 건축물의 피해 정도와 내진구조의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내진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강의 직후 세계적 건축가 Aaron Tan과 (주)길 건축대표 이길환이 공동설계한 스타센터를 탐방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여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광주 건축계 동정

- \*변경 (소재지 변경)**
  - 서재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선 / 광주 북구 중흥동 694-10 건축사회관 3층
  - 신영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사람 / 광주 북구 중흥동 694-10 건축사회관 3층
  - 이용철 건축사 / 두리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평양동 1191-2 2층
- \*폐업**
  - 이 경 건축사 / 전남 건축사사무소
- \*결혼**
  - 정기현 건축사 / 신도시 건축사사무소
  - 본인 - 5월 22일(일)

## 전남 건축계 동정

- \*입회**
  - 이주경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샘터
  - 전남 여수시 학동 98-2
- \*폐업**
  - 양승걸 건축사 / 양우 건축사사무소
- \*변경 (소재지 변경)**
  - 양동범 건축사 / 동진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장천동 51-11
  - 신재관 건축사 / (주)연희 건축사사무소
  - 전남 광양시 중동 1463-4
  - 정집문 건축사 / 다촌 건축사사무소
  - 전남 여수시 학동 77-4
- \*부고**
  - 이명동 건축사 / 명진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05월 09일(월)
  - 이봉수 건축사 / (주)삼진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5월 10일(화)
- \*2011년도 재차 회원 인증교육 실시하였음**
  - 일 시: 2011. 6. 1(수) 14:00~17:40
  - 장 소: 목포대학교 대외협력관 1층 대강당
  - 참 석 자: 전남 건축사회원 131명
  - 교육내용:

시 간	과 목 명	강 사
14:00 ~ 15:30 (90분)	건축사가 알아야 할 질세방법	이기재 세무사
15:40 ~ 17:40 (120분)	기술과 정보시스템관리 (BIM)	유청균 교수

## 전북 건축계 동정

- \*변경 (소재지 변경)**
  - 홍지숙 건축사 / 홍지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70-1

## 희망관을 지으며...

정미혜 원장  
광주성빈여사



성빈여사는 가난하지만 성스럽게 사는 여자아이들의 집이라는 뜻으로  
故 조아라 광주YWCA명예회장이 1952년에 전정고아를 돌보면서 세운  
여자아동양육시설이다.

이번에 성빈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아파트형 생활숙소를 마  
련하게 되어 매우 기뻛고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왔다.

나는 이전에 길거리 청소년을 돌보면서 주거공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얗고 밝은 파스텔톤의 부드러  
운 색과 단정한 자재로 마무리된 사무실은 몸과 마음이 어긋나 있는 청  
소년에게도 부드러운 사랑과 관심으로 자기들을 대하려 한다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하였고, 편안함과 배려에 시설을 조심하고 아껴 사용

하는 모습을 보았다.

난생처음으로 집을 지으며 기대를 많이 하였다. 특히 집을 세채 지으면 천당에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일이라 하  
니 오히려 미션수행을 한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공개입찰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착공하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물가 폭등으로 원자재가격이 오르고, 건설사 사정과 맞물려 노동자들이 일을 잘 하지 않아 공사가 지지부진해지고,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언제 집이 지어지는지 궁금해 했고, 주변에선 공사중단상태로 몇 년이 지날 수  
있다고도 하니 망망한 마음이 들었다. 사방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니 서류는 서류일 뿐이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였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새로운 집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으니 힘내라는 어른들의 격려와 관계자들의 도움으  
로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었다.

지금껏 아파트에 살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집이라는 것이 그저 돈으로 사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모든 집들  
을 다시 보게 되었다. 살기 좋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 분들을 존경하고 감사하게 되었으며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  
다운 일중에 제일이 집을 짓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드디어 1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오는 6월 13일 준공식 후 입주를 하게 되니 이러한 어려움에 원망되었던 분들이 더  
욱더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되며 오직 감사할 뿐이었다.

"알지도 못하는 내가 이것저것 주문하면서 서울 등 출장도 요구하여도 바쁜 가운데에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하나 요  
구사항을 설계에 반영시켜주신 건축사님, 공사 중 우리 아이들이 안전사고에 걱정거리였으나 아이들에게 한 번도 화내  
지 않고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먼저 배려해주시고 공사현장을 성실하게 챙기시는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원자재가상승에도 끝까지 마무리 해주신 시공사 사장님,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사업에 피해가  
 많았을 텐데 협조해주신 전기통신소방관계자 여러분과 건축위원회 위원님, 시청 구청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참아준 우리 아이들이 고맙고 힘든 일과와 야근속에서도 애들을 챙겨준 직원 동료들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하여 뭐  
라 할 말이 없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집을 지어주신 모든 분께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합심하여 더욱더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잘 키우겠다는 생각만 든다. ☺

## 물밑 길

문창식 건축사  
우리 건축사사무소

경운기가 물밑 길 달리고 있다

밭고장 가는 군내버스 시간 맞추려는 것이다

물까지는 삼십 분

밭물이 들기까지 한 시간 삼십 분

고파, 바지락, 낙지, 해산물 내리는 데 삼십 분

달리는 경운기에서 김씨 맘이 바빠진다

하늘길처럼 바닷길도 활하게 보이지만

행여 숨어떠래도 지날라치면

잠시 멈춰다 지나가야 한다

경운기 아직도 물밑 길로 가고 있다

밭목까지 짓고 있다



## Book

## 부부건축가의 건축외길 50년 저자: 부부건축가 원정수, 지순/출판사: 상상

최유미  
건축사시흥비서



부부건축가의 50여년의  
건축설계 활동이 어느덧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오  
랜 세월이 쌓여진 만큼  
설계작업으로 쌓여진 자  
료들을 두사람에게 배풀  
어준 사회인사와 건축계  
인사들의 귀중한 원고자  
료들을 모아서 스스로 자  
신의 행적을 그려낸 '자서  
전'보다 밖에서 부부의 모  
습을 보면서 알려진 '타서전'적인 책으로 부부건축가의 모  
습을 통해 스스로가 건축인생을 되새겨보면서 대과 없이  
건축계의 일원으로서 존재하였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  
게 하여 주는 책이다.

특히 여성이 남성의 독점고유사회분야로 인식되어 있는  
건축가의 길에 들어선 여성건축가 '지순(池淸)'의 건축과  
활동에 관한 여러가지 기록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고  
못내 찜하기까지 하다는 걸 느꼈을 때 '지금은 어떠한가'

라는 반문을 해보았다.

하지만 여성건축가로서의 어려운 역경과 난관을 이겨내  
면서 설계실무의 신뢰와 기쁨을 궁하고 1967년 건축사  
자격 면허시험으로 국내최초의 국가자격 건축사 여성 제  
1호의 명의로 '일양건축'을 개업하여 한국 최초의 여성건  
축사 설계사무소가 탄생한 바, 당시 한국적 사회속에서의  
어려움이 너무도 많아 좌절의 고비 또한 수없이 넘겼다  
니 조금이나마 공감이가 간다.

처음부터 당시 인화공대 건축과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  
는 부군 '원정수'와 부부 건축가 협동체제의 건축설계조직  
이 되었다는 데 부러우면서도 나 자신을 채찍하는 계기  
가 되었고 쉽게구성된 내용과 사진, 스케치로 이뤄진 설  
명이 많기에 누구나 쉽게 책장을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건축가의 꿈을 꾸고, 또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사  
람이라면 두 건축가의 삶과 회고를 통해 건축가로서의  
꿈을 완성 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설계시장의 혼란과 그 가치하락에 따른 디자인의 부재,  
이 모든 것을 일순간에 바꿀 수 없었지만 지금 부부 건  
축가는 작은 회고적 외침을 서두에 내 뱉어 보는 것으로

이 책은 시작된다.

- 같은 건축전공의 길에 함께 건축인생을 시작할 때의  
기대와 희망이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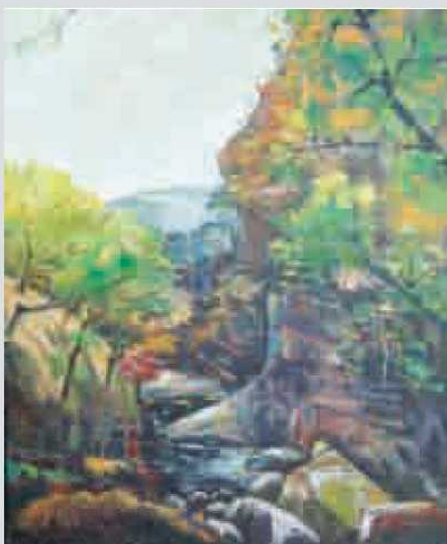
- 가정과 건축 창작 활동을 복합적으로 체험하면서, 터  
득하며 이겨내는 부부 건축가의 보람이 무엇이었나?

- 마치 스포츠의 복식 2인조의 게임을 수행한 방식에  
서 건축설계에서도 공수 양면의 효율적 콤비로서 적응하  
고 체험한 효율과 성과는 어떠한가?

- 개성과 관점이 다른 두사람이 문제를, 대립적 견해  
분석보다, 다양하고 많은 지식 정보로 모으는 기회로 삼  
고, 설계에 적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었다.

- 건축창작 설계작업이 가정과 혼존하는 환경에서 2세  
자녀교육에 영향을 주었던 부부 건축가 생활이 성인이  
된 2세들에게 어떤 결과였나!

- 거장 건축가가 이끌던 20세기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  
협동체 창작시대, 21세기에는 파트너십의 협력조직의 인  
성인재가 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부부건축가도 '2인 3각',  
두사람의 힘을 모아서 효율을 얻은 건축가인가? ☺



설악산 선녀계곡

설악산 선녀계곡을 가보셨나요?  
경치가 그만입니다! 세계제일이기도  
중국의 황산, 계림보다 금강산보다,  
안 가보셨다면 한번가보시라고요,  
자연보다 더 아름답게  
그려진 못했지만,  
그림 그리기는 아주 즐겁습니다.  
설악산 선녀계곡도  
내방으로 가져 올 수 있으니...

광주 김유지 건축사



살의 무게

우리도 이렇게  
힘들게 삶을 이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 봐야하지 않을까?

순천 이광영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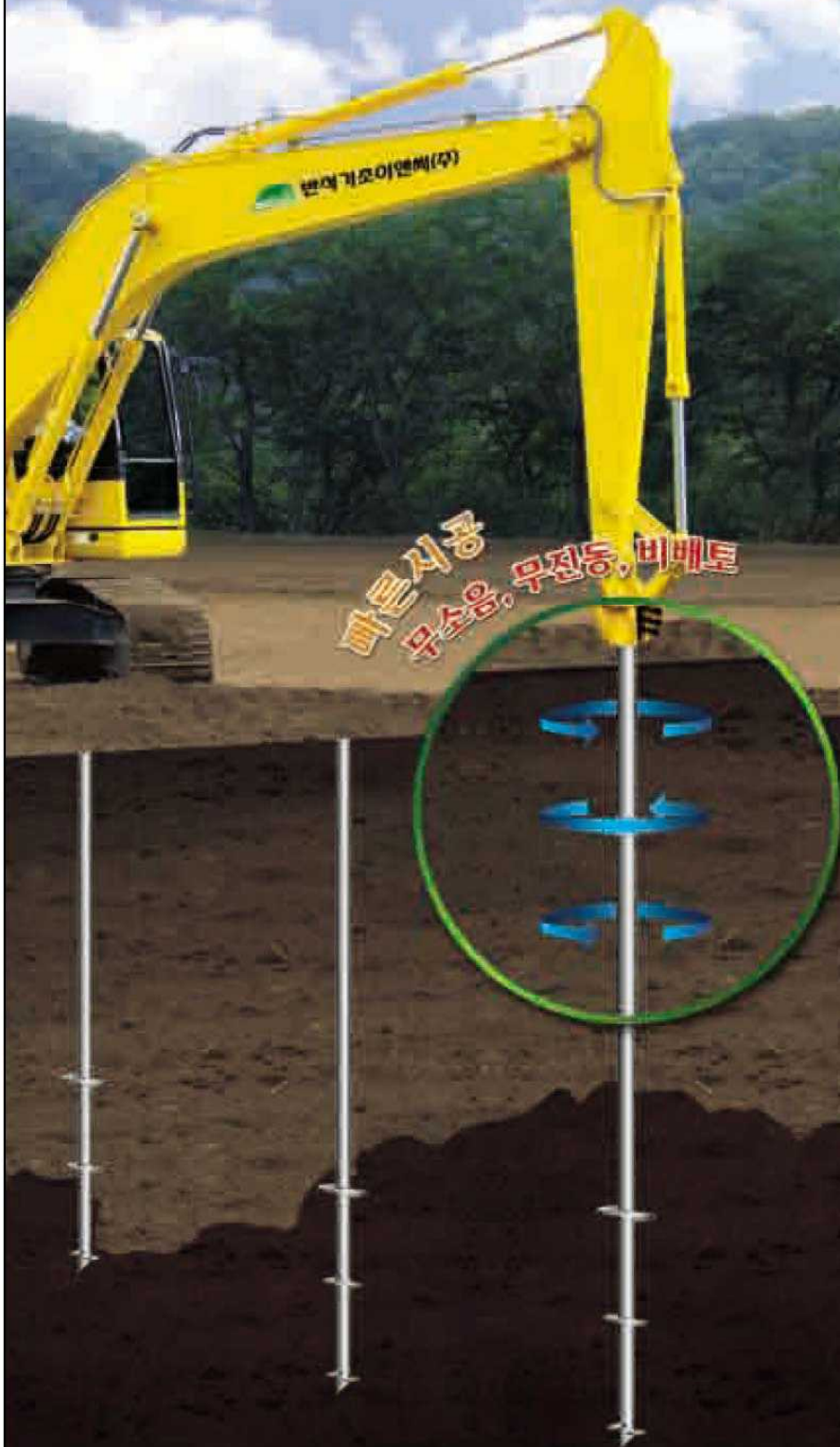
전남 순천시 동천에서

54x66cm 유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 ISO 9001인증

# ROTARY PILE 공법

나선형 회전운동으로 지반에 삽입하여 주변 마찰과 선단지지함으로써  
압축과 인장력에 강한 지지력을 최대화한 친환경 파일 공법



빠른시공  
무소음, 무진동, 비배토

## 시공사례



부천고강동 공영차고지



군산 한산공장



군산 OCI공장



파주 한강 아파트



속초 한화리조트



# 건축물의 가치향상, 외장마감의 아름다움 표현

## 초석건설산업(주)이 최고의 품질과 우수한 시공기술로 실현하겠습니다.



**RIVER CLACK**  
THE FLAT ROOF METAL COVERING SYSTEM

저희 초석건설산업(주)은 차별화된 디자인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신공법개발, 그리고 체계적인 인재육성에 전력을 다하여 왔으며 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실적보다는 미래의 VISION을 제시하고 실행을 우선시하는 마음으로 건축물의 가치향상과 외장마감의 아름다움 표현을 위해 책임있는 설계품질, 시공품질, 최고의 품질경영과 기술개발로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미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장 병 업



나주 국민체육센터



완도 수협할어유통센터



장흥 우산도전망대



완도 수협할어유통센터



무주 반딧불천문과학관



광주 국악전수관



장성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전시관



부안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



부천 가톨릭대학교 150주년기념관



청도 슬리움타운하우스



치명동 근린생활시설



돌출이음



각행돌출이음



평이음



가락이음



리빌패널



골패널

주요 품목

티타늄-아연판(ZINK), RIVER CLACK,(산화)동판, AL SHEET(지붕재, ECOTEEL(접합강판), 링클수지강판, 스테인레스(지붕재), 칼라강판, 고밀도목재패널



**초석건설산업(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구영드림빌 613호  
TEL.(062)381-1138 FAX.062)381-1139

